김소월 시집 5

차례

1. 깁히 밋든 心誠[심성]

2. 안해몸

3. 가을저녁에

4. 不運[불운]에 우는 그대여

5. 바리운몸

6. 鴛鴦枕[원앙침]

7. 집생각

8. 나는 세상모르고 사랏노라

9. 春曉[춘효]

10. 송원이사안서

11. 無題[무제]②

12. 마음의 눈물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1. 깁히 밋든 心誠[심성]

깁히 밋든心誠[심성]이 荒凉[황량]한 내가슴속을
오고 가는 두서너舊友[구우]를 보면서 말이,
「이제는 당신네들도 다 쓸데업구려 !」

-≪開闢(개벽)≫ 26호(1922.8.) pp.25~26

2. 안해몸

들고나는 밀물에
배써나간자리야 잇스랴.
어질은안해인 남의몸인그대요
『아주, 엄마엄마라고 불니우기前[전]에.』

굴뚝이기에 烟氣[연기]가나고
돌바우안이기에 좀이 드러라.
젊으나 젊으신 청하눌인그대요,
『착한일하신분네는 天堂[천당]가옵시리라.』

—《진달내옷 》

3. 가을저녁에

물은 희고길구나, 하눌보다도.
구름은 붉구나 해보다도.
서럽다, 놉파가는 긴들씃테
나는 써돌며울며 생각한다 그대를.

그늘깁퍼 오르는발압프로
씃업시 나아가는길은 압프로.
키놉픈나무아래로, 물마을은
성긧한가지가지 새로써올은다.

그누가 온다고한 言約[언약]도 업것마는!
기다려볼사람도 업것마는!
나는 오히려 못물싸을 싸고써돈다.
그못물로는 놀이 자즐째.

—《진달내쏫》

4. 不運[불운]에 우는 그대여

不運[불운]에우는그대여, 나는 아노라
무엇이 그대의不運[불운]을 지었는지도,
부는바람에날녀,
밀물에흘너,
구더진그대의 가슴속도.
모다지나간 나의일이면.
다시금 또다시금
赤黃[적황]의泡沫[포말]은 북고여라, 그대의가슴속의
暗靑[암청]의이기어, 거츠른바위
치는물싸의.

—《진달래옷》

5. 바리운몸

쑴에울고 니러나
들어
나와라.

들에는 소슬비
머구리는 우더라.
플그늘 어둡은데

뒤짐지고 쌍보며 머믓거릴째.

누가 반듸불쐬여드는 수플속에서
『간다 잘살어라』하며 노래불너라.

—《진달내옷》p.143

6. 鴛鴦枕[원앙침]

바드득 니를갈고
죽어볼까요
窓[창]싸에 아롱아롱
달이 빗춘다

눈물은 새우잠의
팔굽벼개요
봄꿩은 잠이업서
밤에 와 운다.

두동달이벼개는
어듸갓는고
언제는 둘이자든 변개머리에
죽쟈 사쟈 언약도 하여보앗지.

봄메의 멧기슭에
우는접동도
내사랑 내사랑
죠히 울것다.

두동달이 벼개는

어듸갓는고
窓[창]싸에 아롱아롱
달이 빗춘다.

-《진달내쏫》 pp.184~185

7. 집생각

山[산]에나 올나섯서
바다를 보라
四面[사면]에 百[백]열里[리], 滄波[창파]즁에
客船[객선]만 즁즁 ……써나간다.

名山大刹[명산대찰]이 그 어듸메냐
香案[향안], 香榻[향탑], 대그릇에,
夕陽[석양]이 山[산]머리넘어가고
四面[사면]에 百[백]열里[리], 물소래라

젊어서 못갓튼 오늘날로
錦衣[금의]로 還故鄕[환고향]하옵소사.
客船[객선]만 즁즁……떠나간다
四面[사면]에 百[백]열里[리], 나어씨갈까

까토리도 山[산]속에 색기치고
他關萬里[타관만리]에 와잇노라고
山[산]즁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눈물이 압플가리운다고

들에나 나려오면

치어다 보라
해님과달님이 넘나든고개
구름만 쳡쳡……써도라간다

-《진달내쏫》 pp.200~201

8.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

『가고 오지못한다』는 말을
철업든 내귀로 드렷노라.
萬壽山(만수산)올나서서
옛날에 갈나선 그내님도
오늘날 뵈올수잇섯스면,

나는 세상모르고 사랏노라,
苦樂(고락)에 겨운입술로는
갓튼말도 죠곰더怜悧(영리)하게
말하게도 지금은 되엿건만.
오히려 세상모르고 사랏스면!

『도라서면 모심타』는말이
그무슨뜻인줄을 아랏스랴.
啼昔山(제석산)붓는불은 옛날에 갈나선 그내님의
무덤엣풀이라도 태왓스면!

—《잔달내끗》 pp.221~222

9. 春曉[춘효]

아츰도몰으고설잠을자노라면
귀ㅅ가에서 지저귀는새소리

어제ㅅ밤 뒤설닌바람비에
옷입사귀는 얼마나썰엿노

春眠不覺曉(춘면불각효) 處處聞啼鳥(처처문제조)
夜來風雨聲(야내풍우성) 落花知多小(낙화지다소)

孟浩然(맹호연)

—《(東亞日報(동아일보)》(1925.4.13)

10. 送元二使安西(송원이사안서)

渭城(위성)아츰 오는비
길몬지나 적시네
푸르르다 순막쓸
버들가지 빗치야
여보게나 이사람
다시한잔 드세나
인제 陽關(양관) 나서면
어느친구 잇스랴
渭城朝雨浥輕塵(위성조우읍경진)
客舍青青柳色新(객사청청류색신)
勸君更進一盃酒(권군갱진일배주)
西出陽關無故人(서출양관무고인) 一王(일왕) 維一(유일)

－《三千里(삼천리)》53호 (1934.8) p.177

11. 無題(무제)②

해다지고 날점으니
프른山(산)은 멀도다.
날이하도 치우니
집은 가난하도다.
챕싸리 門(문)밖게서
개가 컹컹 짖음은
아마 이눈속에도
제집가는이로다.

日暮蒼山遠(일모창산원), 天寒白屋貧(천한백옥빈),
柴門開犬吠(시문개견폐), 風雪夜歸人(풍설야귀인).

－劉長卿(유장경)－

－《朝光(조광)》48호(1939.10) p.294

12. 마음의 눈물

내마음에서 눈물 난다
뒷산에 푸르른 미루나무닢들이 알지,
나 하고 십픈 노롯 나 하게 하여주소.
내 마을에서, 마음에서 눈물나는 줄을.
나 보고 십픈 사람, 나 한번 보게 하여주소.
건는 집 갓난이도 날 보고 싶플테지,
우리 쟈근 놈 날 보고 십퍼하지,
나도 보고 십다, 너의들이 엇드케 자라는것을.
못닛쳐 글입은 너의 품속이어-,
못닛치고, 못닛쳐 글입길내 내가 괴롭아하는
朝鮮[조선]이어.

마음에서 오늘 날 눈물이 난다,
압뒷산 행길 폽플라닙들이 안다,
마음속에 마음의 비가 오는줄을,
갓난이야 갓놈아 나 바라보라
안즉도 행길우헤 인긔쳑잇나,
무엇 니고 어머니 오시나 보라.
붓두막 쥐도 인전 다 다라낫다.

-〈유고(동아일보)〉 p.12